

## 베이비 부머세대의 노후생애설계 교육에 관한 연구

최용호\*, 전성남\*\*

### Life design education, the aging of the baby boomers Study

Choi Young Ho, Jeon Seong-Nam

#### 요 약

베이비부머세대는 생애주기상 중년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안정된 고용과 소득기반을 상실한채 부모부양은 물론 자녀의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이중, 삼중의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최근에 이들의 준비되지 않은 퇴직과 은퇴가 주요관심사이다.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 노후생애설계 교육에 대한 현황,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후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생애설계교육 활성화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따라서 베이비부머 생애설계교육에서 노후생애설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미시적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정책적,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 Keywords : 베이비부머, 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

#### Abstract

Applicable life cycle phase in midlife baby boomers. These, as well as support one parent without the loss of stable employment and income-based children's education and their retirement should be ready at the same time to double, triple economic burdened. Recently in the preparation of these non-retirement and retirement is a major concern.

This study we want to look 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retirement life planning education status of the country and abroad, retirement life planning program to revitalize the aging of the baby boomer generation life design education. Retirement life planning for raising awareness and design education in the baby boomer life, specifically, how to realize how microscopic analysis to explore the policy and practical alternatives.

▶ Keywords : baby boomer, life management , education program

· 제1저자: 최용호 · 교신저자: 전성남

· 투고일: 2013. 4. 30, 심사일: 2013. 5. 23, 게재확정일: 2013. 6. 10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과 (Dep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Dep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Jeonnam provincial College)

##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1955년부터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개인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은퇴이후에 대한 노후준비의 미흡으로 인한 노인차별, 질병, 빈곤, 가족과 친구상실, 주거조건약화, 성문제, 영양상태 약화, 정서적 문제, 노인학대 등의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노동시장의 변화와 경제성장 둔화, 산업구조변화, 부동산시장변화, 금융시장변화, 국가의 재정위기, 지역간 불균형 발전, 세대간 갈등심화, 공적연금 준비소홀로 인한 사회복지비용 증대 등의 국가재정 압박이 강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1].

고도의 경제성장기에 근로생애를 시작하여 30~40대에 외환위기로 인한 급격한 노동시장 환경과 기업경영상 변화를 겪게 되었고 40~50대에는 금융위기로 다시한번 구조조정의 회오리에 휘말리게 된 베이비부머세대는 정년퇴직 시점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현 베이비부머세대의 퇴직과 은퇴는 현세대 청년층의 취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2].

또한 베이비부머세대는 다른 세대와는 다른 특수한 경제, 문화, 정치적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자라난 세대이기 때문에 이들이 노인이 되었을 때 개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들에게 적합한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특수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하며 성장한 베이비부머세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3].

이러한 베이비부머세대의 증가는 국가와 개인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다. 특히, 인구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노인의 의존도로 인한 건강 비용문제 및 부양자의 부양부담 등에 따른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진전 속에서 예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적·개인적 차원에서 노후생애설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후생애설계 교육은 국가적 차원에서는 고령사회 관련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경감하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인의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노후생애설계에 관한 교육이 확산됨으로써 국가가 준비해야만 하는 고령 사회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동시에 개인으로 하여금 성공적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여 노후 설계에 따른 개인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노후생애는 역사적·사회적 맥락 안에서 성인이 삶의 과정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변화와 심리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과정을 포함하는 동(動)적인 변화과정이므로 노후생애설계 교육은 통합적인 견지에서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 등 여러 영역에 걸친 다 학문적인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 결국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연장된 노년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경제, 신체, 가족, 심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러한 통합적인 견지에서 노후 생애설계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4].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나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와 정책적 대안은 노후생애 설계 교육과 함께 노년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 세대 모두의 삶의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 노후생애설계 교육에 대한 현황,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후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생애설계교육 활성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베이비부머 정의

베이비부머는 미국에서 베이비부머라는 말이 처음 시작되었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6년부터 1965년 사이에 출생한 사람을 베이비부머라고 하고 미국인구 3억 6천여만명 중 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전쟁이후 가족과 만나고 결혼을 하면서 출산율이 높게 되었다. 또한,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성해방과 반전운동, 히피문화, 록음악 등 다양한 사회·문화운동을 주도해 왔다.

우리나라는 1955년에서 1963년까지의 출생자를 베이비부머라고 한다. 1955년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본격적인 복구가 이뤄지기 시작한 시기이다. 정부도 전쟁으로 크게 줄어든 인구를 늘리기 위해 출산장려정책을 펴기 시작하다가 1964년부터 산아제한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시기에 태어난 만 50~58세의 사람들을 베이비부머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끈 실질적 주역으로 정치, 사회적 영향력이 큰 세대이다. 또한 자녀양육과 부모 부양의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는 마지막 세대며 고령화시대에 직면하여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첫 세대이기도 하다. 또한 1997년 IMF외환위기를 온몸으로 이겨낸 생산인구의 허리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이 그 많은 풍파를 겪고 이제 자리를 잡을 만하니 사회는 나

이가 들었으며 직장에서 퇴출시키고 있다. 베이비부머들이 은퇴를 시작하면서 상당수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 될 것으로 보인다(5).

## 2. 베이비부머 세대의 특성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부머들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의 성별분포를 보면 여성이 49.7%, 남성이 50.3%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약간 더 많다. 그러나 2030년경에는 남녀 평균수명의 차이로 여성의 전체의 53.5%가 될 것을 전망된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혼인상태는 유배우 87%, 이혼 6.5%, 사별 3.9%를 차지하며 성별 혼인상태는 여성의 유배우율이 84.6%로 남성의 87%보다 낮게 나타난다.

지역별 베이비부머 세대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 22.4%, 서울 20.5%, 부산 8.0%, 경남 6.5%, 인천 5.8% 순으로 절반 정도가 수도권 지역에 밀집되어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17.7%인 약 126만명이 읍면에 거주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수준은 전체적으로 고졸이 45.3%로 가장 많으며, 전체의 69.9%가 고등학교 이상 진학함으로써 현 노인세대에 비해 학력이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 여성의 61.2%가 고졸이상, 남성의 78%가 고졸 이상으로 여성 베이비부머의 교육수준이 남성에 비하여 더 낮다.

다음은 노후준비가 미흡하다는 특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의 교육, 취업 및 결혼으로 자신들을 위한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6)(7). 우리사회는 앞으로 약 13년 뒤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베이비부머들은 60대 이상의 연령대로 진입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는 이전의 노인집단과 인구 사회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생애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노후생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들이 안고 있는 노후 소득보장, 건강한 노후생활, 돌봄 지원 및 활동적 사회참여 등에 관한 복지욕구를 살펴보면 현재의 사회시스템과 사회보장제도는 베이비부머 세대를 모두 수용하기에는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특히, 이들은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다. 베이비부머들은 대부분 은퇴직후부터 만65세가 되기 이전까지의 약 10년 동안 공적 소득보장제도와 「노인복지법」에 기반을 둔 노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서비스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8). 따라서 우리나라는 예방적 측면에서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하고 제

한적이다.

## 3. 노후생애설계의 개념

퇴직준비는 퇴직이라는 단절적인 특정사건이 가지고 올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 미리부터 준비해서 대처해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는 일자리로부터의 '퇴직'이 가져올 경제적 소득원의 상실과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서 전직준비 및 재취업 준비 또는 대안적 소득원에 대한 준비를 의미하게 된다.

노후준비는 생애주기 중 '노년기'로의 진입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준비해 나간다는 의미로서 퇴직준비보다 포괄적이거나 여전히 노년기가 가지고 올 상실에 대한 소극적 대처의 의미를 내포하며 이에 따라 주로 경제적 준비와 일치되는 경향이다.

노후설계의 경우 준비보다는 적극적인 '설계'의 의미를 함축하지만 여전히 현실에서는 협소한 의미의 '재무설계'와 혼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노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과정이 아닌 단절적 단계로 인식하는 경향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노후설계의 개념은 노후를 생애주기의 연속적인 한 단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해 미리부터 적극적으로 설계해 나가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후설계 지원서비스는 이러한 노후설계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적, 물적 서비스를 의미한다고 본다.

또한 노후설계의 목적은 평균수명의 증가로 더욱 길어진 노년기를 인생의 '짜투리'가 아닌 적극적인 한 단계로 규정하고 전 국민이 이에 대해 사전에 계획하고 설계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년기 이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9).

노후생애설계는 노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영역 전반인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 III. 노후생애설계교육의 필요성

### 1. 생애발달과정 관점

노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전 생애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다. Baltes & Baltes(1990)(10)는 전 생애 발달과정 관점을 강조하며 인간의 인생의 어떤 지점에서든 발달과정이 시작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발달과정이 지속되는 기간과 끝나는 시간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발달은 새롭게 노년기에 시작될 수도 있다는 관점을 강조하였다. 따

라서 많은 발달과정들이 다양한 연령에서 시작하며, 사람들은 발달에 큰 다양성을 보이고, 이러한 발달의 다양성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11].

생애 과정적 관점(Life-course Perspective)은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화가 일어나고 있는 사회구조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노화는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전 생애 과정으로서, 발달은 아동기 이후에 경험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이는 인간발달의 과정을 보다 개방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개인의 생애과정의 패턴은 사회적 환경적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개인의 연대기적 연령(life time)과 사회문화적 과정(social time), 역사적 과정(historical time)에 의해서 노화과정은 달라지는 것이다[12].

전생애 과정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인기의 발달, 중년기, 노년기의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전생애 발달과정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후생애설계를 전생애 발달과정 관점에서 볼 때 노년기 이전부터 준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접근하여야만 한다.

## 2. 통합적 관점

노화란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측면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성공적인 노후생애설계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적으로 접근하여야만 한다. 그러나 대부분 노후생애설계를 위한 교육들을 여러 측면에서 함께 다루어 교육하기 보다는 노후건강관리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둔 노후 교육들이 주를 이루었다[13][14]. 따라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볼 때 노년이해의 기초, 노후인간관계, 노후자산관리, 노후심리, 주거준비, 건강관리 등에 관하여 노후생애설계 교육을 실시되어야 한다.

첫째, '노년이해의 기초'는 노후생애설계 교육을 위해서 노년에 관한 기초적 이해를 전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노인의 인구학적 변화와 노인 및 노화, 노년의 개념적 이해 뿐 아니라 노인복지에 관한 전반적 이해와 노인의 삶에 관한 교육이 요구되어진다.

둘째, '노후인간관계' 측면을 볼 때 가족 및 친구를 포함한 노인의 사회적 관계는 노인 생활 만족도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노년기 부부관계, 성인자녀 및 손자관계와 대인관계 등을 이해함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노년기 사회적 관계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후심리'는 심리적 특성과 지적, 학습능력의 이해 뿐만 아니라 노년기에 보다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 죽음과 사별에 대한 이해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노후의 심리적 과정들

에 관한 이해는 노년기의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준비과정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져야 한다.

넷째, '건강관리' 측면을 볼 때 2010년 고령자 중 본인의 주관적인 건강상태를 보면 49.4%가 나쁘다고 본다[15]. 이에 노인들의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우울 불안 그리고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노인의 인지적 기능 자신감 그리고 삶의 만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6]. 노년기 이전부터 규칙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노화예방과 건강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져야 한다.

다섯째, '노후자산관리'는 2011년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층이 겪고 있는 어려운 점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40.2%로 나타났다[15].

소득구성비에서 「이전소득」이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볼 때[17], 노후생애 설계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년기의 가용자산을 분석하고 소득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주거준비'는 노인의 생활을 고려한 주거환경이 갖추어진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비율은 3%정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거편의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17]. 따라서 노후의 주거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노후 주거준비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 3. 성공적 노화를 위한 관점

노후생애설계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노후생애설계 교육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다. 과거 노후생애설계 교육들은 대부분 다양한 현상들에 대해 이해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면 최근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공적 노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긍정적 관점에서 사전 예방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전 생애 발달과정을 통해 도달해 나가는 성공적 노화와 동시에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들에 관한 통합적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이해를 바탕으로 노후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이 구성 되어져야만 할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개념은 1986년 미국 노년사회학회가 처음 제시하였으며, 그 이후 1990년대부터 생물학, 사회과학, 의학 등의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18].

Rowe와 Kahn[19]은 성공적 노화가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로 구성되어 있음을 강조하였

으며, Crosnoe & Glen[20]는 가족참여,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 등을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우리나라 연구들에서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강인[21]은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녕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김미혜와 신경림[22]은 자기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최혜경[23]은 노인들이 살아가는 문화적 가치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나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노후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은 전생애 과정에 걸쳐 다양한 영역들에서 다양한 요인들을 포함하고 문화마다 부여하는 성공적 노화의 의미가 다르다고 볼 때 궁극적으로 노후생애설계교육을 통해 성공적 노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후생애설계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성해야만 한다.

#### IV. 노후생애설계교육 현황과 프로그램 사례

##### 1. 우리나라 노후생애설계교육 현황

우리나라의 노후생애설계 관련 교육프로그램들은 실시대상과 실시기관을 중심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교육 실시대상은 노년기 가족이나 노인, 그리고 예비노년층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들은 <표1>과 같다.

표 1. 교육대상에 따른 프로그램 내용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 대상
성인자녀를 위한 노인부양교육프로그램 (홍숙자외, 1995)	노년기 가족대상
치매노인부양자 대상 프로그램 (이은희 외, 2006)	노년기 가족대상
노인의 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어성연, 신상옥, 1996)	노인대상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전길양, 2000)	노인대상
노인교육프로그램(최보아외, 2004)	노인대상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 (김병숙 외 2005, 안기선:2000)	예비노년층

노년기 가족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는 성인 자녀를 위한 노인부양 교육프로그램, 치매노인 부양자 대상프로그램 등이 있고 노인 대상 교육프로그램으로는 노인가정생활교육 프로그램, 풍요로운 노후 가꾸기 -노년기 준비교육 프로그램, 노인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예비노년층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은퇴준비 교육프로그램 등이 있다.

교육 실시기관은 공공기관, 복지기관, 민간단체, 종교기관, 대학,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용정보원, 중앙공무원교육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해당되며, 복지기관은 노인복지관협회, 민간단체는 희망제작소, 종교기관은 남서울교회, 천주교서울대교구 노인대학연합회, 대학은 서울사이버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등에서 노후생애설계관련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

기업의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으로 한국전력에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은퇴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약 100명씩 매년 두 차례로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내용으로는 재산관리, 건강관리, 은퇴생활의 사례소개, 은퇴자모임인 전우회 안내, 그리고 간담회와 수료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서울시 교원연수원에서는 당해년도 퇴직예정 교원 및 일반직을 대상으로 약 100명씩 3일간 12시간에 걸쳐 은퇴자의 경험담, 삶과 행복, 더불어 사는 삶, 건강한 생활, 전통문화의 향기, 연금과 재산관리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노후생애가 연장됨에 따라 미래 노후생애설계 관련 교육프로그램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다양한 계층에 맞는 적합한 노후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2. 외국의 생애설계교육 현황

###### 2.1 일 본

선진국에서는 생애설계교육이 보편화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은 기업에서 생애설계교육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교육대상은 40~50대가 중심이지만 정년퇴직 대상자를 중심으로 별도 운영하기도 한다.

주로 복리후생차원의 종업원의 교육을 통하여 애사심 고취, 자조노력의 증가, 근로의욕 향상 등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교육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도 높다.

또한, 기업들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과 더불어 퇴직 후 경제적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생애설계 세미나를 실시하고 있다.

생애설계교육은 노사 공동주최, 노조주최, 지방자치단체 주최 등 다양한 기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운영사례로는 도요타 등 대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사례가 많으며, 다이치(第一)생명 등 주요 연구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중소기업은 회사주도보다는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자발적으로 생애설계교육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全國勞動者共濟生活協同組合聯合會(全勞濟)는 퇴직 후 제 2인생을 설계하는 중소기업근로자를 대상으로 생애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다이치생명의 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은 시간(Time), 돈(Money), 건강(Health) 3가지 핵심주제로 구성하고 30~40대 근로자, 공무원, 교원 등을 대상으로 단체니즈에 따라 2일, 1일, 만나질 등 유연한 일정으로 교육운영(1회 30~50명 정도 참석)을 하고 정년퇴직 예정자, 부부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과정도 개발하였다.

이처럼 일본은 기업을 중심으로 재직자, 퇴직예정자, 부부 등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생애설계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문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2.2 미국

미국에서는 종합적인 인생계획을 수립하는 개념으로 라이프 플래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활동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라이프 플래닝이란 인생의 다른 단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등의 전통적인 커리어와 재무중심의 은퇴설계를 넘어 비재무적 분야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주로 민간기업에서 근로자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해 활용되었으나, 현재 공공분야와 비영리 단체에서 라이프 플래닝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커리어 및 인생 카운슬러·코치 대학교의 커리어 카운슬링 센터, 인력개발 전문기관 재무 설계사 및 은퇴설계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 심리학자 등이 업무상 라이프 플래닝을 폭넓게 활용하고 있다.

운영사례로 시카고주 유테인 고령자협회는 로올라 대학의 사회복지학과와 공동으로 “장래 당신의 인생을 설계하라 (Mapping your future your way)” 라는 평가방법을 개발하여 건강, 일과 여가, 재무, 주거, 관계의 5가지 영역에 대한 설계 필요성을 이해하고, 5가지 영역별로 생각해볼 핵심적인 이슈를 제시하고, 온라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클리블랜드 재단의 성공적인 노화운동(Successful aging initiatives)의 일환으로 “인생의 다음 단계(what’s next)”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2시간의 세미나를 통해 장래 인생의 꿈을 발견하고 공유하고 계획하고, 건강, 창의성, 가치, 영성에 관한 평생학습 계획을 개발하였다.

미국에서도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에서도 건강, 일과 여가, 재무, 주거, 관계, 창의성, 가치, 영성,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24).

## 2.3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1968년 대학이 지역사회 공헌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제3기 인생대학(U3A)이 조성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최초의 U3A는 1973년 툴루즈 대학이 지역사회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노년학 강좌를 개설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U3A 명칭도 최근 연령통합을 강조하기 위하여 “생애중심대학”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U3A 강좌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강좌지만 연령통합의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개방되어 있다. 비노인은 시간제 노동종사자나 주부, 학생 등이 주류를 차지한다. 강좌는 어학강좌에서부터 역사, 미술, 연극, 문학, 영화, 종교, 세계정치 등 다양하게 개설되어 있는데 특이할만한 점은 노년에 관한 강좌는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Life Academy가 운영되고 있다. Life Academy의 모태는 1965년 설립된 Pre-retirement Association인데 이는 민간조직으로서 정부지원으로 ‘퇴직 준비교육’을 제공하는 조직으로 기능하다가, 점차 생의 또 다른 국면을 준비하게 하는 ‘생애설계’로 분야를 넓혀 서비스를 보다 다변화시키면서 조직의 명칭 또한 변경하였다. 이곳의 서비스는 개인에 대한 퇴직준비 교육과 생애설계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프랑스는 연령통합을 더욱 강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노후설계에 있어 민간보다 국가의 기본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고 코디네이터들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거친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서비스가 국가의 기본적인 인프라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25).

## 3. 프로그램 운영사례

### 3.1 노후생애프로그램

서울사이버대학교 e-노후생애설계교육프로그램(2009)을 살펴보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후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영역은 노년이해의 기초, 노후인간관계, 노후자산관리, 노후심리, 주거준비, 건강관리의 6개영역 40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영역의 주 내용과 시간 및 방법은 <표 2>와 같다.

표 2 노후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의 영역 및 운영

영역명 (주내용)	강의 시간	세부목표	세부목차	강의방법
노년기의 의의(과거) (노년기의 의의)	5	인구학적 변화추이와 노인의 전반기적인 특성을 이해하기	1.노인의 인구학적 변화 2.노인/노화/노년의 이해 3.생애의 이해, 성공적인 노후 설계 4.노인복지정책 5.노인유사체험	영상소개, 음성녹화 비디오, 도표, 그림, 만화, 설문지, 셸프테스트, 영화포스터제시, 광고, 신문자료, 애니메이션, 실습영상체험
노년기의 발달(현재) (노년기의 발달)	7	전생애 발달과정 관점에서 노후의 사회적 관계와 여가생활을 이해하기	6.노년의 사회적관계 이해 7.노년기 여가생활 이해 8.부부관계 9.성인자녀/손자관계 10.대인관계 11.여가생활설계 12.성공사례	영상소개, 음성녹화 비디오, 도표, 그림, 만화, 설문지, 셸프테스트, 영화포스터 제시, 광고, 신문자료, 애니메이션, 복지관영상자료
노년기의 준비(미래) (노년기의 준비)	10	여유로운 삶과 생산적인 노후를 위한 경제적 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며 생애발달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13.은퇴설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4층 보장론 14.노후에 사용할 가용자산에 대한 분석 15.은퇴생활에 맞는 자금소요계획수립 16.노년 현금흐름의 중요성 이해 17.공적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이해 18.개인연금상품에 대한 이해 19.노후 재무관리를 위한 부동산상품의 이해 20.노후재무관리 21.상속세 및 증여세 22.노후생활에서 새로운 일자리 찾기	영상소개, 음성녹화 비디오, 도표, 그림, 만화, 설문지, 셸프테스트, 영화포스터 제시, 광고, 신문자료, 애니메이션.
노년기의 심리(노년) (노년기의 심리)	6	노후의 심리적 변화과정을 이해하며 노후의 심리적 위기를 대비 하고 인성을 꾀하기	23.노인의 심리적 특성 24.은퇴의 심리적 준비 25.나의 성격 이해 26.나의 자적/학습능력이해 27.죽음 및 사별 준비 28.유언장 작성/장묘준비	영상소개, 음성녹화 비디오, 도표, 그림, 만화, 설문지, 셸프테스트, 영화포스터 제시, 광고, 신문자료, 애니메이션
노년기의 주거(노년) (노년기의 주거)	4	다양한 노인주거문화를 탐색하여 자신의 적절한 주거형태를 계획하기	29. 노후 주거의 이해 30. 좋은 주거 찾기 31. 노인복지시설의 이해 32. 국내외 주거 간접체험	영상소개, 음성녹화 비디오, 도표, 그림, 만화, 설문지, 셸프테스트, 영화포스터 제시, 광고, 신문자료, 애니메이션

(생활개선) (생활개선)	8	신체적 노화과정을 이해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을 증진하여 질병에 대한 노출을 감소하기	33.건강유지증진 34.신체적 변화의 이해 35.식습관 및 영양 36.노인안전관리 37.노인성 질환관리 38.고령자 장기요양보험의 이해 39.호스피스에의 이해 40.성공사례	영상소개, 음성녹화 비디오, 도표, 그림, 만화, 설문지, 셸프테스트, 영화포스터 제시, 광고, 신문자료, 애니메이션

3.2 노후생애설계 교육 프로그램 분석

노후생애설계교육프로그램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퇴직준비교육 및 노후준비교육, 노후생활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준비교육은 퇴직을 앞둔 사람들로 하여금 퇴직 이후에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자신의 퇴직 후의 생활을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퇴직예정자들의 사회적응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노후준비교육은 노후를 맞이하는 예비노인과 초기노인이 노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다양한 문제인 건강, 경제, 고독과 고립, 역할상실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를 돕는 교육이다. 노후생활교육은 퇴직준비와 같이 노년기 생활적응을 통한 성공적 노화에 목적을 두고 단순히 정년퇴직 준비를 위한 남성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예비노인, 초기노인을 대상으로 노년기 생활전반에 걸쳐 노년기를 준비하는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후생애설계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은퇴기 전 또는 예비노인, 노년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내용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내용, 재정, 건강, 인간관계, 여가활동 등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노후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은 노년기에 적응하여 성공적인 노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생애설계를 통해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 실천기능을 훈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후생애설계교육프로그램의 영역과 운영내용을 <표 2>에서 살펴보면 장년층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노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매우 다양한 접근을 하였으며, 영역에서도 노년이해의 기초, 노후인간관계, 노후자산관리, 노후심리, 주거준비, 건강관리까지 전 생애과정에 걸쳐 매우 다양한 경험을 통합적으로 접근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대상의 다양성을 고려한 부분이 미흡하며 선진국에서와 같이 재직자, 정년예정자, 부부 등에 맞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당면과제인 베이비부머세대에 적합한 노후생애설계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 V. 결론

베이비부머세대의 은퇴나 노후준비에 대한 많은 연구와 정책적 대안이 개발되고 있으나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러나 노후생애 설계교육은 베이비부머세대 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이후 세대 모두의 삶의 질 제고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부머세대의 특성, 노후생애설계 교육에 대한 현황, 우리나라와 외국의 노후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생애설계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정책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 1. 정책적 측면

첫째, 전 국민의 노후생애설계를 의무화하는 법제도화 방안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혜로운 예방적 측면에서 노후생애설계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노후보장과 관련한 많은 법률들이 있으나 각각의 법률은 독자적 제정목적, 입법목표도 상이하다. 따라서 노후설계서비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지속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새로운 법률의 제정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베이비부머 은퇴 준비 및 생애전환기 지원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베이비부머가 은퇴 후 생애전환기에 활동적인 생활을 하면서 노년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확충해나갈 필요가 있다. 먼저 직장에서의 퇴직 교육 확대, 사회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노년기 준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은퇴 이후의 생활에 미리 대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위기 개입 및 노후생활 지원 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되어야 하고 기존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관주도형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복지서비스의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이용자의 접근성이나 만족도는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저소득층의 요보호 대상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해서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의 급여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복지 시스템 진입 이전 단계에 놓여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소득창출, 건강관리, 요양, 봉사활동, 여가문화 활동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와 관련된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통합창구를 신설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를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노후생활설계 서비스 확대, 베이비부머 데이터베이스 구축, 베이비부머 세대 단체 지원, 노후생활 마일리지제도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노후생애설계 교육을 담당할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노후생애설계는 전생애 과정에 다양한 영역이 포함된 만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노후생애설계 교육을 담당할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노후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해야 한다.

### 2. 실천적 측면

첫째, 노후생애설계교육의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공무원, 교원, 공기업, 일부 대기업에 한정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주로 퇴직 예정자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특히, 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지자체와 민간기관이 협력하여 실용적인 생애설계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다양한 교육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 현행 노후생애설계 교육프로그램이 집합교육 위주로 운영되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온라인을 통해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다양한 계층이 편리하고 저렴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실습과정 등을 도입해서 베이비부머들의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베이비부머세대에 맞는 노후생애설계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은퇴설계 상담서비스가 필요하다.

노후생애설계 교육 후에는 생애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플랜을 수립하려는 욕구를 고려해서 실질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되어야 한다.

## 참고문헌

- [1] Young Joon Cho "Search for Economic Educational Strategies for Baby-Boomer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19 No.1, pp.123-145. 2012.
- [2] Ha nam Phang, Sung Kyun Lee, Seki Jin Woo, Ji Hyun Kim, Ji kyung Kim, "Working life anol retirement of the babyboom generation process research", Korea Labor Institute, Quarterly Journal of policy, 2011-03, 2011.
- [3] Soon Dool Chung, Hyun Hee Lee, "Life

- Satisfaction for Baby-boomers: Compare 1998 with 2008,"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55, pp.105-132, 2012.
- [4] In Kang, Kum Ju Kwon, Seo Young Lee, Dong Hwan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Distance Curriculum for successful elderly life manage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4 No.1, pp.191-211, 2009.
- [5] Young Joon Cho, Articles : "Search for Economic Educational Strategies for Baby-Boomers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Economic Education*, Vol.19 No.1, pp.123-145, 2012.
- [6] Kyung Hee Jung, et. al., "Baby Boomers Bemographic Protiles and welfare need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0.
- [7] Gyoung Hae Han et. al., "Baby Boomer Study in South korea", SNU institute on Aging, 2011.
- [8] Young Ran Park, "After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Seeking Life-Support mode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 [9] So Jung Lee, "Policy challenges of the aging of the baby boomers prepar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1.
- [10] Baltes, P.B., Baltes, M.M., Freund., A.M., Lang. F., "The Measurement of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soc) by Self Report(Tech. Rep. 1999)," Berlin, Germany: Max Planck Institute for Human Development, 1999.
- [11] In Kang, Kum Ju Kwon, Seo Young Lee, Dong Hwan Kim, "A Study on the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Distance Curriculum for successful elderly life managemen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4 No.1, pp.191-211, 2009.
- [12] Kyung Hae Han, "Focused on Marriage Timing Inter-generational Relations and the Timing of Life Course Transitions and Counter-trnsitions," *The Korea Gerontological Society*, Vol.11 No.1, 1991.
- [13] Min, Soon Joo, Ae Ran Baek, Myung Park, Sang Hwa Shin, In Yong "Practice of the Elderly Educational Program for Health Improvement of the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17 2002.
- [14] Chang Je Park, "Types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Aging by Age," *Korea Social Security Studies*, Vol.24, No.4, 2008
- [15] Statistics Korea, "2012 report on the social survey," 2012.
- [16] Young Shin Won, Dae Sun Ko, "The Effects of Exercise for Elder's Life Style Pattern," *Journal of korean physical education association for women*, Vol.21 No.3, 2007.
- [17]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urvey of Elderly in 2011," 2012.
- [18] Kwon Joong Don, "Social welfare for the aged," seoul, hakjisa, 2013.
- [19] Rowe, J. W., and Kahn, R. L.(Eds),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1998.
- [20] Crosnoe, R., & Glen, E. H., "Successful adaptation in later yea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65 No. 4, pp309-328, 2002.
- [21] In Kang, "A Study on Perception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20, 2003.
- [22] Mee Hye Kim, and Kyung Rim Shin, "Th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uccessful Aging' Scale for Korean Elderly," *International Journal of Welfare for the Aged*, Vol.25, 2003.
- [23] Hye Kyong Choi, "The Concept of Successful Aging as Perceived by Korean Elderly: Constructing Concept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in Korean Cultural Context," *Journal of family relations*, Vol.13 No.3, 2008.
- [24] Hyung Jong Lee, Hong Min Park, "The Retirement of the Baby Boomers, and Support Jobs," *The Korean Society of Welfare for the Aged*, pp102-123. 2012
- [25] Gyung Hwa Shin, "A Study on How to Galvanize Old-Age Life Design Services for Comfortable Later Life of Baby Boomers, Jungbu University, 2011.

## 저 자 소 개



### 최 용 호

1988: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1995: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 석사  
2005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현 재 :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학상담과 부교수  
관심분야 : 복지정책, 복지행정  
Email : ok@dorip.ac.kr



### 전 성 남

1993 : 호남대학교  
행정학과 행정학사  
1999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문학석사  
2007 : 조선대학교  
행정학과 사회복지학박사  
현 재 : 광주동구시니어클럽 관장  
전남도립대학교  
사회복지상담과 겸임교수  
관심분야 : 노인복지  
Email : jsnsw@korea.com